

남궁만의 단막희곡 연구

김봉희* | 경남대

<목 차>

- I. 들머리
- II. 광복기 북한의 단막희곡과 남궁만의 창작 활동
- III. 남궁만의 단막희곡의 특성
 - 1. 광복 직후 단막희곡
 - 1) 단순 구조와 장면의 압축화
 - 2) 대립적 인물과 결혼 문제
 - 2. 인민공화국 수립기 단막희곡
 - 1) 긍정적 인물의 등장과 조직적인 단결력
 - 2) 묘사적 무대와 보고의 기능 강화
- IV. 마무리

I. 들머리

한국 희곡사와 연극사에서 광복기¹⁾ 희곡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광복기는 남북한 모두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 새 조국 건설이라는 무거운

* 경남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조교수.

1) 광복 이후를 일컫는 말로 해방기, 해방공간, 해방전후, 광복기, 미군정기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그리고 북한 문학사에서는 ‘평화적민주건설시기’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한다. 글쓴이는 그 가운데서 ‘득광어국토회복(得光於國土恢復)’에서 출처된 광복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광복기는 1945년 8월 15일에서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광복 5년 기간을 말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광복기를 다시 ‘광복 직후’와 ‘인민공화국 수립기’로 나눠서 사용하도록 한다.

과제를 안겨 주었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극문학은 안팎으로 높은 이념 대립의 선전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단막희곡의 신속·간결한 단일성은 작가가 표방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사상을 강렬하게 이끌어 냈다.

광복 직후, 남한에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연극동맹’을 위시로 단막희곡은 다양한 소재를 통해 연극의 실천적 모색을 시도했다.²⁾ 반면, 이 당시 북한에 기반을 두었던 극작가의 활동은 미비했다. 그러나 북한 연극은 1946년 10월에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편되면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 아래 북한의 단막희곡은 아직 공산주의 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북한에서 인민들을 교화·선동하는 역할을 해냈다. 그 중심에 재북 극작가 남궁만³⁾이 있다.

남궁만은 나라잃은시기 노동자 출신 작가이며, 노동연극 운동에 몸담으며 문단활동을 했다. 광복 후, 그는 고향인 평양에 머물러 있으면서 ‘평양예술문화협회’의 조직에 가담하는 동시에 1946년 6월에 대거 월북한 극작가들과 함께 ‘북조선예술총동맹’의 일원이 되었다. 북한 연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남궁만의 희곡 창작활동은 다른 극작가들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다. 현재 북한 문예지에 수록된 작품과 연구자들에게서 갈무리된 창작 희곡 작품 수가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북한 연극사에서 기록된

2) 김봉희, 「광복기 단막희곡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8쪽.

3) 남궁만(1915. 11. 6-1987. 11. 9)은 1915년 11월 평남 강서군에서 출생했으며, 평양 보통학교를 중퇴하였다. 그는 1929년 15살 나이로 평양의 고무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자 문예서클 활동을 시작했다. 1934년에는 이석진 등과 함께 평양에서 극단 「신예술좌」를 조직·활동하던 중 5·1절을 앞두고 경찰에 피검되기도 했다. 그의 정식 문단 활동은 1936년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테릴사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이다. 그 후, 그는 희곡 「산막」, 「청춘」, 「전설」을 차례대로 신문이나 문예지에 게재했다. 광복 후에는 남한에서 그의 희곡작품 「포구」(3막)가 극단 「시민극장」의 박춘명 연출로 중앙극장에서 공연된 바 있다. 그는 평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초기 북한 연극계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선전부장을 역임했으며, 1956년에는 조선작가동맹 작가위원회 위원 겸 국문학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남궁만은 희곡이외에도 소설과 실화문학 등 다양한 갈래에 걸친 문학 활동을 전개한 작가이다.

남궁만의 연극 활동과 작품의 수는 다른 극작가에 비해서도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⁴⁾

- 4) 현재, 광복기 이후 남궁만의 창작 희곡이 갈무리된 것은 총 22편이다. 그 가운데 광복기의 희곡 작품이 17편에 이르며, 단막희곡이 13편이다. 다음의 목록은 글쓰기가 북한희곡사와 문예지를 갈무리하고, 선형연구에서 다시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 번호 | 작품명 | 창작년도 | 게재지/년도 | 비고 |
|----|--------------------|---------|--|--|
| 1 | 포구(3막) | 1946년경 | | 3막. 1946년 3월 극단 시민극장에서 박춘명 연출로 공연. (미발굴) |
| 2 | 복사꽃 떨 때 (2막) | 1946. 8 | 희곡집. | 2막 |
| 3 | 하의도 (1막) | 1946 | 『공산주의자』, 1961. | |
| 4 | 봄비(1막) | | 『남궁만 희곡집』, 1947. | |
| 5 | 홍경래 | 1947. 8 | 『남궁만희곡집』, 1947 | |
| 6 | 산하유정 | 1947 | 『조선문화』, 1947. | 1막으로 추정- (미발굴) |
| 7 | 가을(1막) | | 『조선문화』, 1947. | |
| 8 | 제주도 (1막) | 1947. 8 | 『문학예술』, 1948. 11. | |
| 9 | 노동자 (1막) | | 『단막희곡집』, 1948 | |
| 10 | 기관차 (1막) | 1948. | 『8·15해방 3주년 기념 종합축전희곡집』, 문화전선사, 1948 | 1948년 8월 20일 교통부 예술극단에서 초연. |
| 11 | 결혼문제 | 1948. 7 | | 1막으로 추정- (미발굴) |
| 12 | 산의 감정(1막) | 1949.1 | 『단막희곡집(군중문화총서3)』, 북조선직업총동맹군중문화부, 1949. 4 | |
| 13 | 소낙비 (1막) | 1949 | 『문전문고·단막희곡집』, 문화전선사, 1949. 6. 25 | |
| 14 | 니꼬라이 | 1949 | 『로동자』, 1949 | |

남궁만의 단막희곡 연구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광복기에 남궁만이 남긴 희곡의 대부분이 단막희곡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남궁만 자신이 시대 상황과 당 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했던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남궁만의 광복기 단막희곡 창작은 전쟁기를 거쳐 북한 문단 활동의 입지를 다지게 해주는 동시에 문학 갈래의 폭을 넓혀주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남궁만의 단막희곡 창작은 자신의 북한 문단 활동의 시작인 동시에 자신의 문학적 입지를 다지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지금껏 남궁만의 희곡에 대한 연구는 나라잃은시기 남궁만의 희곡 활동⁶⁾과 광복기 남궁만의 희곡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 접근⁷⁾에 관한 논의였

| | | | | |
|----|---------------------|----------|--|--|
| | 떠나는 날 (2막) | | | |
| 15 | 토성량 풍경(1막) | 1949 | 『문학예술』, 1949. 9 | |
| 16 | 아름다운 풍경(1막) | 1949. 11 | 『위대한 공훈(소련군 환송기념 창작집)』, 북조 선문학예술총동맹, 문화전 선사, 1949. 12 | |
| 17 | 임산철도 공사장 (1막) | 1949. 12 | 『종합단막희곡집』, 문 화전선사, 1950. 5 | |

- 5) 광복기 이후, 남궁만은 전쟁기를 거쳐 주체사상이 대두되기 이전까지 단막희곡을 비롯하여 소년소설, 단편소설, 실화문학 등 다양한 문학 갈래 창작으로 영역 확장해 나갔다.
- 6) 이재명, 「남궁만 희곡작품에 대한 분석 연구-1936년 발표작 「테릴사위」, 「산막」, 「청춘」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5, 1993. 이재명의 논문에서는 남궁만의 전기적 생애와 함께 1936년에 발표된 희곡 작품의 특성을 여러 가지 무대 활용 극작 기술과 평양의 향토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언어성으로 꼽고 있다.
- 7) 김향, 「해방직후 남궁만 희곡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 특성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제42집, 한국극예술연구학회, 2013. 12.
김향, 「인민공화국 수립기 남궁만 희곡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 정치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6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12.
김향의 첫 번째 논문은 해방직후 남궁만의 희곡에서 멜로드라마적 극적 전략을 통해 농민들의 계급 인식과 탈식민적 인식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김장군을 새로운 지도자로 내세우기 위한 선전·선동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

다. 그리고 광복기 북한 희곡의 흐름 속에서 남궁만의 몇몇 작품을 해석하기도 했다.⁸⁾ 하지만 아직까지 남궁만의 단막희곡에 대한 개별 논의는 없었다. 이것은 광복기의 희곡 전체를 북한 현실과 당 정책에 수용되는 단선화된 작품 형태로 파악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남궁만의 북한 문단 활동 가운데서도 광복기에 창작·발표한 단막희곡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글쓴이는 먼저 광복기 북한의 단막희곡의 형성과 그 속에서 남궁만의 창작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남궁만의 단막희곡 11편을 광복 직후와 인민공화국 수립이기로 나눠⁹⁾ 극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남궁만의 단막희곡은 광복기 북한의 체제 구축에 선전도구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의 단막희곡을 정치극이나 선전극으로 소개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광복기라는 역동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궁만의 단막희곡에 대한 이해와 특성이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광복기 북한의 극문학의 폭이 넓혀지고, 남궁만의 문학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

했다. 두 번째 논문은 인민공화국 수립기 남궁만 희곡에서 드러나는 ‘멜로드라마적 정치성’은 노동자의 회생을 전제로 한 집단 동원 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앞선 해방직후의 희곡과 변별력을 갖는다고 논하고 있다.

- 8) 이석만, 『해방기 연극 연구』, 태학사, 1996.
 양승국, 「1945-1953년의 남북한 희곡에 나타난 분단 문학적 특징」, 『한국연극의 현실』, 태학사, 1994.
 정낙현, 「북한희곡의 특성과 구조 연구 - 1945-1960년대 중반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정수, 「해방기 북한연극의 공연미학」, 『공연미학연구』 제20집, 공연문화학회, 2010.
 나덕기, 「해방기 북한 희곡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2.
 전지니, 「해방기 남북한 희곡의 젠더정치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0호, 한국극예술학회, 2013.
 유연주, 「해방기 북한연극의 대중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9) 이 글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남궁만의 광복기 단막희곡을 ‘광복 직후’와 ‘인민공화국수립기’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광복 직후 발표 희곡: ① 하의도 ② 봄비 ③ 가을 ④ 제주도
 인민공화국 수립기 발표 희곡: ① 노동자 ② 기관차 ③ 산의 감정 ④ 소낙비 ⑤ 토성랑 풍경 ⑥ 아름다운 풍경 ⑦ 임산철도공사장

II. 광복기 북한의 단막희곡과 남궁만의 창작 활동

광복기 북한의 단막희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대 북한의 정책과정과 문학 활동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단막희곡은 국면 변화와 전개에 따라 작가들의 주장과 이념을 빠르게 담아내는 정치적 도구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자 했다. 따라서 체제의 구축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광복기를 포괄적인 한 시기로 인식한다면 이 시기 단막희곡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광복기 북한 단막희곡의 흐름을 ‘광복 직후’와 ‘인민공화국 수립기’ 두 시기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¹⁰⁾

첫째 시기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에서 1948년 전반부인 ‘광복 직후’이다. 광복 직후, 평양에서는 이미 ‘평양예술문화협회’가 가장 먼저 발족되었다.¹¹⁾ 이들은 순수민간단체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지향했다. 이 단체와 맞서 결성된 단체가 평남지구 ‘프롤레타리아예맹’이었다. 그 회원으로 고일환, 남궁만, 이석진, 이덕훈 등 신진예술인들이었다. 실제 ‘프롤레타리아예맹’은 김일성이 이끄는 북조선 노동당의 하부조직이었다. 이 단체는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정권기관으로 등장함으로써 문화부에서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곧이어 1946년 3월 28일 문화예술분야는 ‘평문협’과 ‘평남예맹’이 통합이 되고, 카프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체 예술가들을 총망라한 ‘북

10) 현재, 북한에서 발표되어 갈무리된 희곡작품의 수가 빈약해서 논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광복기를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를 기점으로 해서 ‘광복 직후’와 ‘인민공화국 수립기’ 두 시기 구분을 따르도록 하겠다.

북한 문학사에서 광복기를 ‘평화적민주건설시기’라고 명명되어진다. 이 ‘평화적민주건설시기’의 연극활동을 신고송의 「연극동맹」(『문학예술』, 1949. 8)에서는 북한 연극 운동을 그 발전과정을 대별하여 세 기로 나누고 있다. 첫 단계는 광복 직후로부터 1946년 상반기, 둘째 단계는 각도 공작단의 창립과 함께 단체들의 정비개선 및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 실시 과정인 1946년 상반기에서 1947년 4월까지의 단계. 셋째 단계는 1947년 5월에서 글을 신고 있는 1949년까지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11) 회장 최명익, 총무 김병기, 문학부장 문학수, 외국문학부장 이휘창, 음악부장 김동진, 연극부장 주영섭으로 구성된 단체.

조선예술총연맹'이 결성된다. 같은 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송영, 박세영, 한효, 신고송, 이동규 등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출신의 작가들이 대거 월북함으로써 '북조선총연맹'은 활기를 띠게 된다. '북조선총연맹'은 낡은 봉건타파와 일제 세력 청산하고 민주주의 새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곧 '민주주의 민족문화'를 내세운 인민성을 강조하였다.

勿論 初創期의 演劇이 全部가 同一한 志向에 서고 同一하게 步調를 맞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中에서도 過去의 商業主義的인 低俗한 人情劇과 歪曲된 歷史劇의 亞流와 演出 演技 舞臺美術 等 各 部門에 있어서의 新波 形式의 襲踏은 一部 觀客層의 아직도 깨지 못한 낡은 意識과 趣味에 迎合하였던 것이다.¹²⁾

하지만 이 시기에 북한의 창작 희곡들은 북한 노동당의 강령에 맞추어진 작품이기보다는 단순한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거나 친일파의 죄악에 대한 폭로, 항일 혁명가들에 대한 찬양, 인민주권을 위한 투쟁을 그린 것이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신파형식을 답습하는 극들이 상연을 하고 있었다. 이에 북한은 1946년 5월 중앙예술공작단을 창립하고 각 도 예술공작단을 조직하여 전체 연극 예술가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켜 나갔다.¹³⁾ 무엇보다 혼란한 광복 직후, 북한 연극의 구심점은 1946년 10월에 개편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이었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전문 분과인 '북조선연극동맹'은 광범한 서클 조직망을 구축해나갔다. 이미 대다수의 공장과 농촌에 서클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기동적 활동은 충분치 못했다. 예술작품은 이 서클을 통하여 비로소 조직적으로 대중화 될 수 있으며 인민들을 계몽·선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 남궁만은 신인 출신으로 「하의도」라는 단막희곡을 내놓는다. 광복직후, 일제에서 벗어난 단순한 기쁨의 노래를 담아내었던 단막희곡에 비해 남궁만의 희곡 「하의도」는 남한을 배경으로 미제국주의에 대한 강렬한 민중 투쟁의지를 보여 주어 많은 연극

12) 신고송, 위의 글, 81쪽.

13) 1946년 5월 24일 김일성은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예술인 대회에서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라고 연설하였다.

서클에서 공연되었다.¹⁴⁾

북한은 1946년 12월 3일에 열린 ‘제14차 당중앙위원회’에서 ‘예술지상주의 잔재청산’을 지시하였다. 1946년 말까지도 지방 곳곳에는 상업주의를 표방하는 극단과 악극단들이 존재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 성립의 방해가 되고 있었다.¹⁵⁾ 이에, 북한은 1947년 3월 28일 ‘제29차 상무위원회’에서 연극의 사상성을 중점을 두어 극장망 체계를 확립시켰으며, 당에 의해 ‘고상한 리얼리즘’이 대두되었다.

당의 강령에 힘입어 1947년 5월에 다시 극단의 정비개혁이 단행되었다. 종전에 60 개의 극단과 악극단을 재편성하였다. 연극 예술부문에 남아있던 상업주의 등 낡은 잔재 청산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북한의 연극은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도 단위를 비롯한 사회단체 극단들이 창립되는 등 자립연극이 활기를 띠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중문화사업’은 날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연극 활동의 활기는 창작극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 무렵 극작가 남궁만도 단막희곡 「봄비」, 「산하유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북한 문학예술의 활기는 1947년 8월 9일에서 9월 초순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8·15 광복 2주년기념’ ‘문학예술축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 축전에서 발표된 문학작품 수 만해도 9백 여 편에 달하게 되었다. 연극 부문도 국립극장을 위시한 8개의 전문극단이 참가하였다.¹⁶⁾ 같은 해 『조소문

14) “米帝國主義者들과 그 앞잡비인 反動派들의 陰謀를 人民들 앞에 暴露하는 作品들을 上演하여 巨大한 役割을 遂行하였던 것이다. 南宮滿 작 「荷衣島」는 이 時期의 가장 成果를 건운 作品이며 全體 劇團들과 많은 同好會들에서 上演하여 成果를 받았다.” 신고송의 앞의 글, 82쪽.

그 외에도 토지개혁과 농민들의 성장 발전 과정을 그린 한태친의 장막극 「바우」, 「봉화」과 백인준의 「묘향산맥」 등이 많은 인민들의 호응을 일으켰다.

15) “演劇活動이 急速한 發展을 가져온 反面에 아직도 部分的으로는 商業主義的 演劇이 都市를 中心하여 活動을 하고 있었다. 그 中에서도 樂劇團들은 日帝末葉의 頹廢的인 歌曲과 形式을 그대로 襲踏하여 低俗한 舞臺를 보여주고 있었다. 平壤의 建國座, 新生劇團, 三千里樂劇團, 平壤 歌劇團, 東邦歌劇團 등과 新義州의 青春舞臺, 元山의 新成歌劇團 등이 그러한 것이다.” 신고송, 앞의 글, 82쪽.

16) 다음은 ‘문학예술축전’에서 공연된 극단과 작품명이다.

화』와 『문학예술』이 창간되면서 북한 창작극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이 시기 남궁만은 ‘북조선 문학동맹전문분과 위원회’ 회공분과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¹⁷⁾ 또한 『조소문화』에 광복 전 만주에서 고생을 하다가 북한으로 이주해 온 꼴지네 이야기를 담은 단막희곡 「가을」을 발표했다.

둘째 시기는 1948년 후반부에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전 기간인 ‘인민공화국 수립기’이다. 1948년에 실시한 경제 2개년 계획은 북한의 농촌 경리계획 초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군중문화 사업이 더욱 활성화시켰다. 그 까닭은 사회주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부강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단막희곡은 광복 직후보다는 영웅적인 인물형상과 당 정책에 낭만적인 전망을 그려내는 작품 들이 많았다. 게다가 소련의 선진기술과 친소정신에 입각한 단막희곡들이 등장했다.

1948년 8월에 ‘8·15 광복 3주년기념예술축전’에서 노동자들의 창작극이 단막희곡만하더라도 백 여 편이 넘었다. 그 가운데 입상한 백문환의 「성장」(3막 5장)을 비롯하여 축전에 참가한 여섯 편의 희곡을 모아 『희곡집』(국립인민출판사, 1949. 9)을 출간하였다. 여기에 남궁만의 단막희곡 「기관차」가 실렸다. 이 희곡집은 박령보의 「태양을 기다리며」(전5막)과 백문환의 「성장」(3막 5장)을 제외한 네 편은 모두 단막희곡이다. 또한 희

강원도 전문극단 : 박영호 작 「홍수」
 시립예술극장 : 송영 작 「인민은 조국을 지킨다」
 함북 전문극단 : 서만일 작 「불꽃」
 국립극장 : 고진극 「춘향전」

- 17) 1947년 『조소문화』와 『문학예술』이 창간되면서 북조선 문학동맹 전문분과 위원 명단이 발표된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소설위원 : 이태준, 이기영, 한설야, 최명익, 김사량, 윤세중, 이동규, 현향준, 이북명, 최인준, 석인혜, 유향림, 김화청
 시 위원 : 이정구, 이찬, 박세영, 박팔양, 민병균, 박석정, 백인준, 김우철, 김상오, 이원우, 김복원
 희곡위원: 박영호, 송영, 김사량, 김승구, 신고송, 한태천, 남궁만, 김일룡, 김태진
 평론위원 : 안막, 김두용, 안함광, 한효, 윤세평, 정건, 신고송, 전봉수, 엄호필, 한식
 아동문학 위원 : 박세영, 송연, 신고송, 이동규, 정산, 강소천, 노랑근
 외국문학 위원 : 정건, 백석, 박리순, 엄호필, 최호, 김상오
 조선작가동맹, 『문학예술』 창간호, 문학예술출판사, 1947.

곡의 내용 면에서도 다양성을 드러냈다. 그 내용은 각기 '8·15광복 삼 주년 동격운동' 속에 노동자들의 장애와 고난을 헤쳐 나가는 열정을 담는가 하면 낡은 인습과 싸워 나가는 젊은이의 의지, 제주도 인민들의 항쟁을 그려 내고 있다. 무엇보다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인작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¹⁸⁾

八·一五解放記念藝術祝典戲曲集은 우리 文學에 있어 重大한 收穫이다. 이 戲曲集에는 祝典에 入賞한 白文煥作『成長』을 비롯하여 여섯 편의 戲曲이 收錄되었다. 이 여섯 편의 戲曲들은 偉大한 民族建設 三年의 새로운 制度위에서 그리고 祖國의 統一과 獨立과 民主化를 위한 全體 人民의 熱烈한 鬪爭의 한가운데서 쓰여진 作品그렇기 때문에 이 戲曲들은다른 많은 文學作品들과 더불어 우리들의 現實의 새로운 內容에 依하여 規程된 質的으로 새로운 文學이다.¹⁹⁾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문학예술 사업의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대중화사업은 대중문예운동과 전문문예운동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대중문예 운동으로는 서클 군중문화사업, 전문 문예운동은 노동자·농민 출신의 신인 육성과 작가의 현지 파견으로 대별된다. 첫째, 군중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농민극단'이 창단되어 순회공연을 가지는 등 많은 전문 극단과 그 아래 연극서클 조직을 지니게 되었다. 둘째, 전문문예운동은 작가들을 직접 현지에 파견하는 '생산자 문학'이다. 1949년 한 해만 하더라도 많은 작가들이 생산현장에 파견하였다.²⁰⁾ 남궁만도 평양의 제지공장, 함경남도 백두산 산림 철도공사장을 배경으로 한 단막희곡 「산의 감정」, 「토성량 풍경」, 「임산철도 공사장」을 발표했다.

18) 1948년 9월에 국립인민출판사가 출간한 '8·15 광복 3주년기념예술축전기념' 『희곡집』의 목차이다.

機關車(全一幕) - 남궁만, 나루사가에서(全一幕) - 박혁, 太陽을 기다리며(全五幕) - 박명보, 成長(三幕 五場) - 백문환, 漢擎山(全一幕) - 오정삼, 白茂線(全一幕) - 한민

19) 한호, 「藝術祝典의 戲曲들」, 『문학예술』. 1949. 6쪽.

20) 광복기 북한의 작가들은 인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가 증산을 체험하고 르포르타주 쓰기 시작하며, 나라잃은시기 미처 이루지 못한 대중적 문예를 지향하게 되었다. 작가들의 현지 파견은 송영, 이복오, 박웅채는 '홍남공업지대', 김사량은 '황해도제철소', 황건은 '아오지' 였다.

또한 1948년 10월부터 북한에서 소련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소련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경제·군사적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소련의 연극이나 문예이론을 번역하며 소련군에 대한 친선의 의지를 다지는 단막희곡이 등장하였다. 남궁만의 창작 단막희곡 「아름다운 풍경」에서 소련군에 대한 감사와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단막희곡들의 내용은 주로 인민경제 개혁을 위한 개혁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른 농민들의 투쟁, 남한 인민들의 투쟁과 선동이다. 이를 통해서 인민들을 교화하고, 인민경제를 수행하여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다져나갔다. 이러한 북한의 연극의 흐름 속에서 남궁만은 뚜렷한 주제와 간결성을 담은 단막희곡으로 인민들에게 극문학의 자원을 제공하며, 자신의 문학적 행보를 다져 나갔다고 하겠다.

III. 남궁만의 단막희곡의 특성

1. 광복 직후 단막희곡

광복 후, 북한의 토지 개혁은 여러 차례 이견을 보였다. 1946년 2월 말에 개최된 ‘북조선 농민대표대회’에서 토지개혁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고, 이것을 1946년 3월 5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침에 입각한 토지개혁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입각하여 문학 창작 작품에서는 ‘토지개혁’에 대한 열의와 북한사회주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광복 직후에 발표한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도 북한이 강행한 토지개혁에 대한 지지를 담아내고 있다.

1) 단순구조와 장면의 압축화

단막희곡은 하나의 종착점을 향하여 강력하고 똑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지녔다. 동시에 전개방식에 있어서 신속·간결한 단일성을 지향한다.

남궁만의 단막희곡 연구

이러한 간결한 단막희곡의 구조는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작가가 전달 하고자하는 주제를 확장시키는 데 큰 작용을 할 수 있다. 광복 직후 발표 한 남궁만의 네 편의 단막희곡에서도 간략한 서술과 극의 결말을 강조한 단순 구조를 갖추고 있다.

- 하의도 : ① 신한공사의 횡포, 군정청 영터리 조사로 농민들은 곤궁에 처함.
- ② 꼴지 아버지 김장에는 박종창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하려면 소를 사오라고 함. 꼴지는 박종창과 결혼하기 위해 생선을 훔쳐 팔기 시작. 그런 꼴지를 유혹하는 신한공사 직원남.
- ③ 농민들의 움직임(윤구장-소련군의 북조선 토지개혁 상황 전달, 김진배-소를 팔고 3.8선을 넘기를 결심)과 이를 방조하는 미군 앞잡이(김목사)
- ④ 신한공사를 등에 업은 목포경찰서의 진입
- ⑤ 농민들의 저항과 투쟁.
- 가 을 : ① 서간도에서 이주해온 어머니와 그의 가족 영일, 꼴찌. 땅을 갖게 되었고, 영일이 목수로 돈 벌러나가고, 풍년이 든 현실에 행복해 함.
- ② 그러나 서간도에서 5살 들쎄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난하여 딸 꼴지를 돈밖에 모르는 점식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는 입장.
- ③ 꼴지는 점식과 결혼 거부. 점식은 현물세가 많다고 투덜댐. 그런 점식을 꾸짖는 구장
- ④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보안간부가 돼서 찾아온 들쎄 아들 영삼.
- ⑤ 점식의 횡포를 저지하고, 가족과 상봉하는 영삼.

위의 인용 부분은 남궁만의 희곡 「하의도」와 「가을」의 줄거리 체계를 나열한 것이다. 두 작품의 줄거리 체계는 현재 등장인물이 처한 현실상황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등장인물과 사회 혹은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사이에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물 혹은 하나의 부류들이 극 진행에 개입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극적 개입을 한 인물이나 부류를 통해서 불러오는 투쟁과 갈등 해소라는 결말을 맺는다.

이 줄거리 전체를 도식화하면 ‘현실 상황→ 갈등 → 개입→ 투쟁 혹은 해소’로 나타낼 수 있다. 곧, 광복직후 남궁만의 단막희곡은 극 진행에서 개

입하는 인물이나 부류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말부분에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북한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가을」과 「봄비」는 갈등 양상이 해소되는 결말을 지닌다. 「가을」에서는 영웅²¹⁾이 되어서 돌아온 영삼이를 통해서 꼴지네는 점식이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봄비」²²⁾에서는 땅 때문에 꼴지와 청남을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한 김장에는 위원장의 나무람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된다. 그때, 오래도록 기다렸던 봄비가 내림으로써 관객들은 극의 갈등은 해소 될 것이라 믿게 된다.

반면, 극의 배경을 남한으로 설정 한 「하의도」와 「제주도」²³⁾의 결말부분은 극의 갈등이 고조되는 투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각기 농민들에게 가혹한 세금 징수와 횡포를 부리는 ‘신한공사’, ‘목포경찰’과 ‘미군’과 그 앞잡이 ‘최주사’의 무력적 개입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말을 강조하는 단순 구조는 모두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지지로 귀결되고 있다. 남공만의 단막희곡 속에는 토지개혁에 따른 북한과 남한 상황을

21) 광복 직후, 남공만의 인물 가운데 영웅적 면모를 갖춘 인물은 ‘고상한 사실주의’에 입각한 혁명적 인물이기 보다는 나라잃은시기 일체의 횡포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남공만의 희곡 「가을」에 등장한 영삼이는 연길에서 일제가 조선인 가옥에 불이 질러 고작 5살이라는 나이에 부모·형제를 잃어 버렸다. 하지만 영삼은 군 간부가 되어 부모와 형제를 찾으러 온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22) 「봄비」의 줄거리 체계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① 1947년 어느 농촌의 첫 봄. 박씨 집에 죽은 줄 알았던 청남이가 돌아와 논 대는 일을 도맡아 함.
- ② 김장에는 군용지 만평을 자신에게 분여해주지 않은 청남이를 미워함. 청남은 토지를 분여 받지 않은 이들에게 군용지를 분배함.
- ③ 김장에는 꼴지와 청남이의 결혼을 반대, 꼴지는 자살을 하려 저수지에 뛰어 듦.
- ④ 위원장은 김장에의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과 처신을 나무람.
- ⑤ 김장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 그때, 오랜 가뭄에 단비가 내림.

23) 「제주도」의 줄거리 체계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① 1946년 6월 제주도 한라산 아래 마을. 농민투쟁 위원장인 원남이 한라산으로 올라가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미군과 최주사. 원남이 집에 찾아와 가족에게 횡포
- ② 미군정의 약탈상황과 농민들의 처지, 원방의 약혼자 박태식이 소금장수로 마을에 들어옴.
- ③ 미군과 최주사는 원남을 잡기 위해 일부러 박태식을 풀어주어 추이를 지켜 봄
- ④ 원남이 마을로 온 것을 알고 경비대를 원남 집으로 투입.
- ⑤ 경비대와 미군의 횡포로 운씨, 며느리가 쓰러지고, 박태식이 죽음을 맞이함. 원남 미군정에 대한 투쟁을 부르짖음.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남궁만의 단막희곡은 단순한 구조 속에서 공연시간과 ‘극중 사건의 전체 시간’²⁴⁾ 사이에 생겨나는 시간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장면을 압축화²⁵⁾해서 드러내고 있다. 실제, 단막 희곡의 경우에는 막과 장에 의한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시간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남궁만은 인물들의 대화 속에 과거의 장면을 서술하여 삽입하고 있다. 단막희곡 「봄비」에서는 아버지 김장애가 청남과 결혼을 끝내 허락하지 않자 꼴지가 저수지에 몸을 던지려고 한다. 여기서 꼴지가 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벼랑 위에 올라가는 것을 위원장이 보고 구해서 온다. 여기서 꼴지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은 그려지지 않고 위원장의 대사를 통해서만 전달하고 있다.

청남 그만두세요. 장가 들겠다고 제 땅을 남 주겠소.
꼴지 (울면서 급히 달려 나온다)죽구 말테야요. 죽구 말아. (상수로 사라진다)
김장애 (뒤따라 나온다)죽어라. 죽어.
<중략>
위원장 저 벼랑턱으루 기어 오르는걸 바어 달구 왔소. 내가 마춤 보았기 말이지, 그러다 일이라두 저지르면 어땡건단 말이요.
김장애 옛기, 못한 것. 집안 망신 시키누라구 이 지랄이냐.²⁶⁾

인용 장면처럼 상연시간이 짧은 단막희곡에서는 모든 장면을 다 그려낼 수 없다. 그래서 남궁만은 「봄비」에서 죽으러 가는 꼴지의 모습을 보이고,

24) “‘극중 사건의 전체 시간’이란 해당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점부터 종료된 지점까지의 전체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김재석, 『한국 현대극의 이해』, 연극과인간, 2011. 76쪽.

25) 남궁만은 자신이 직업동맹 서클을 위한 강좌로 발표한 「단막극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확연하게 단막극의 장면의 압축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단막극은 三幕 四막에 나가는 장막극에서 한 막만 떼어냄다든가 장막을 쓰는 식으로 해서 한막으로 짧으는 게 단막이 아니다. 장막극이 어떤 사건의 앞뒤와 이모저모를 뜯어가며 보이는 것이라면 단막극은 이 사건의 어느 단면을 찍어 보여줌으로써 장막극 같이 사건의 전모를 말해야 하는 것이다.” 남궁만, 「단막극은 어떻게 쓸 것인가」, 『노동자』, 1949. 3. 62쪽.

26) 남궁만, 『남궁만 희곡집』, 1947, 쪽.

그 후 위원장의 대사를 통해 꼴지의 극단적인 행동이 전달되고 있다. 그의 작품 「가을」에서도 꼴지네 식구는 나라잃은시기 자신의 땅 없이 남의 나라 눈치를 보면서 타국을 전전했던 이야기가 대사 속에 삽입되어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피붙이인 둘째 아들 영삼을 잃은 이야기도 어머니의 대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²⁷⁾ 남한을 배경으로 한 「하의도」와 「제주도」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하여 나라잃은시기 왜놈들의 수탈과 지금 현재 미군들의 폭정을 한꺼번에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대사 삽입된 장면들은 극의 시간과 공연시간의 연속성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시기의 경험들을 관객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극적 장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순구조와 장면 압축 장면은 극적 기능을 한층 높이는 데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궁만의 광복 초기 단막희곡에서는 급작스럽게 치달아 올라가는 결말부분에서 개연성과 필연성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특히, 「가을」에서 둘째 아들 영삼이 오로지 연길의 쌍가마를 가진 어머니를 찾아 상봉하는 장면은 억지스러운 구성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에서 마찬가지로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 농민항쟁의 원인이나 진행과정 보다는 어눌한 미군과 그의 앞잡이 최주사의 모습만 강조하여 미군정을 조롱하고 있다. 반면 미군정의 폭압 속에 시달리는 남한 민중들의 모습을 그려내서 북한의 평등하고 안정화된 토지제도에 대한 찬양을 싣고 있다.

2) 대립적 인물과 결혼 문제

희곡은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극 진행상의 갈등을 파악할 수

27) “어머니 늘 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三년 五년 가진 애를 다 써서 땅을 일구어 놓으면 왜놈들은 또 난리판을 일으켜서 는 우리 조선 사람드를 내여 쫓는군. 만주 땅이 살기 좋다고 해서 떠나갓다가 무진 고생을 했네. 왕청으루, 연길루, 서간도루... <중략> 바루 연길 있을 때일세. 五년을 접어드니게 농사두 잘된 가을인데 또 그 놈의 왜병들이 쳐들어왔어. 온 동리가 불바다가 됐는데 우리 내외는 아이들을 업구 앞세우구는 그냥 정신없이 날이 밝도록 도망을 가 보니까 글세 우리 둘째 놈이 그만 따라오질 못했군 그래? (번 회想方을 더듬어 목이 메인다) 그 불이 펄펄 붓는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말었지.” 남궁만, 「가을」, 『조소문화』, 1947. 3. 214쪽.

있다. 동시에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희곡에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 극의 중심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갈등의 차이 폭이 비슷할 경우 극의 갈등이 팽팽하게 전개되며, 반동인물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주동인물의 수난이 증폭된다. 남궁만의 단막희곡 속에서도 주동 인물과 대립적 인물을 등장시켜 극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①김장에 그래, 우리 동리 땅을 건너 마을 사람들은 왜 준단 말이야.
청남 그 분은 만주에서 지난 겨울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김장에 글세, 생각을 해 보야. 내야 딸만 한 구둘 득실득실하는 걸,
그것들이 다 출가하문 난 무얼 부쳐먹구 산단 말이야.
청남 왜 장인님 장모님 똥은 있지 않습니까.
김장에 군용지는 토질이 아주 일등판이겠다. 뉘엿물이야 삼년 가물
러두 마르지 않겠다, 그까짓 수리조합논에다 비할가.
청남 그 땅이 그렇게두 소원이시라면, 제가 받은 땅을 바꿔 드릴 수
는 있겠습니까.
김장에 그만두게, 그만두어. (집으로 들어간다)²⁸⁾

- ②上士 아들을 어디 숨겼서?
尹氏
米人將校 몰라? (윤시에게 권총을 겨누고 막어 들어 노리다가 권총
자루로 어깨에 갈긴다)
며누리 어머니! (달어들어 윤씨를 감싸준다) 늙은이야 무얼 압니까.
절 때려 주세요.
上士 열녀로군 그래. 이봐 집안이 다 편이 살구 싶지? 그렇다면 남편
이 우리들 앞에 곱게 귀순하도록 하란 말이야. ²⁹⁾

앞의 인용한 희곡 「봄비」에서는 주동인물인 청남과 반동인물 김장예의 갈등의 폭은 팽팽한 구도로 전개된다. 징용에서 돌아온 청남은 민청대원들과 같이 논 개간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한편 청남의 예비 장인인 김장예는 논 개간을 한 땅을 자신에게 주지도 않고 이재민에게 분여하는 청남이가 못마땅하다. 결국, 김장예는 자신의 분에 못 이겨 딸 꼴지와 청남의 결혼을

28) 남궁만, 「봄비」, 『남궁만 희곡집』, 문화전선사, 1947, 32쪽.

29) 남궁만, 「가을」, 앞의 책. 208쪽.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청남과 김장애의 대립은 극 진행상 팽팽하게 대립된다. 이러한 대립은 극의 결말부분에 가서 위원장의 화해와 딸 꼴지의 자살 소동으로 와해된다.

아래에 인용한 극은 「제주도」의 도입부다. 이 극은 도입부 장면부터 반동인물들이 강렬하게 주동 인물을 위협한다. 이 극의 진행은 반동세력의 위협과 회유책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주동인물들의 수난을 관객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미군의 치밀한 회유와 기만 계획이 녹아들어 있어 주동인물들의 대립적 투쟁은 당연한 결과로 그려내고 있다. 그 외 「가을」과 「하의도」에서도 극 초반과 중반까지 반동 인물의 세력이 극을 장악함으로써 주동인물의 수난과 그에 따른 주동인물의 저항의식에 핵심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봄비」에서는 김장애의 개심과정이 급작스럽게 전개된다. 뿐만 아니라 「가을」에서 대립적 인물로 등장하는 점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문제 해결에 대한 수궁한 장면이 보이지 않음으로 그 뒤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남궁만의 광복초기 단막희곡에서는 유달리 결혼문제를 주요 예피소드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단막희곡 속에 결혼문제는 주요 인물들을 극적 진행상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곧, 극 중에서 ‘결혼 장애’ 요소를 만들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946년에 발표한 「봄비」와 「하의도」에서는 각각 아버지 ‘김장애’라는 인물들의 독단적인 생각과 지나친 ‘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결혼 장애가 나타난다. 하지만 두 작품에 표방한 결혼문제는 결과적으로 다른 양상을 빚어낸다. 「봄비」에서는 우여곡절을 겪고 청남과 꼴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지만 「하의도」에서는 아버지의 소에 대한 집착과 신한공사의 횡포에 저항하다 딸 꼴지는 약혼자인 박종창을 잃게 된다. 또 다른 단막희곡 「제주도」에서도 미군에 저항한 원방의 약혼자 태식은 목숨을 잃고 만다.

占植 수작은 뽀뽀스럽게-글세 이 자식이 생각을 해봐. 처음 정혼할 때 五千 圓을 주었지그러구는 밤낮 굶는다 쌀이 떨어졌다해서 양식을 대어주다 싫어했지 그게 三年동안이야.

永一 글세 저 애가 죽어두 죽어두 시집은 못간다구 언제부터 억지를 써 오기야 했죠. 하기가 어른들이 살기 위해서 저걸 팔어 먹는가 생각하면 불상하기두.³⁰⁾

한편, 광복 초기 북한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가을」에서 나타나는 결혼 문제는 다른 양상을 띤다. 31) 극 중 반동 인물인 점식은 가난한 꼴지 가족을 돌보아주며 정혼을 약속한 꼴지가 딴마음을 먹을까 그녀의 식구들에게 폭력을 가하며 억압한다. 그러나 한사코 꼴지는 점식에게 시집가기를 거부한다. 이 문제는 극 전반부부터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극의 주요한 대립적 갈등 요소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극 후반부에 등장한 보안부 간부인 영삼이의 “결혼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니까 본인이 반대하는 결혼은 할 수 없다.”는 단호한 대사를 통해 결말을 지어진다. 결국, 극 속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결혼문제는 광복 후 북한 사회의 남녀평등이라는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궁만의 광복직후의 단막희곡은 첫째, 결말을 강조하는 단순 구조를 취하면서 대사 진행과정에서 장면을 압축해 나가고 있다. 그의 단막희곡은 결말부분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물이 개입하는 가에 따라서 ‘투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전체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이 연출이 된다. 또한 장면의 압축화를 통해 사건의 진행상황을 전달받음으로써 공연시간과 극적시간의 차이를 줄여주고 있다. 둘째, 대립적 인물을 형상화하면서 결혼문제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극적 갈등을 표면화하여 극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문제를 위기에 봉착하게 하는 장애요소를 등장시켜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남궁만의 광복 직후 단막희곡의 특징들은 폭압으로 점철되는 미군정과 상반되는 북한의 인민평등을 건설해 나가는 토지개혁에 대한 지지를 담아내고 있는 동시에 극진행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30) 남궁만, 「가을」, 앞의 책, 216, 218쪽.

31) 남궁만의 단막희곡 「가을」을 ‘딸 팔기 모티브’의 한 양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지니의 「해방기 남북한 희곡의 젠더정치 연구」(『한국극예술연구』 제30호, 한국극예술학회, 2013)에서 언급된 광복 후의 희곡에 나타난 딸 팔기 모티브의 도덕적, 사회적 타락의 잣대로 남궁만의 「가을」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가을」은 유연주의 「해방기 북한연극의 대중성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에서 지적대로 나라잃은시기 가장 대중적 ‘딸-팔기 모티브’를 통해 식민지배 시기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광복 상황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모색의 일환으로 보는 편이 바르다고 하겠다.

2. 인민공화국 수립기 단막희곡

1947년 중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국제 정세는 냉전체제를 걷게 되었다. 이에 따른 남북한은 자주적 통일 국가의 수립이라는 민족적 희망이 희박해지면서 남북한 각자의 정부 수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문학은 이미 1947년에 대두되었던 ‘고상한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산주의식 ‘애국주의와 국제주의’³²⁾를 표방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1948년에 수립한 경제계획 2년을 통해 경제 공산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인민들의 노력·총화를 담아냈다. 인민공화국 수립기에 발표한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도 노동자·농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혁명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열성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1) 긍정적 인물의 등장과 조직적인 단결력

북한문학은 1946년 말과 1947년 초를 거치면서 부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낭만주의인 ‘고상한 리얼리즘을 정착시키기 시작했다. 고상한 리얼리즘이야말로 북한의 인민들에게 문화혁명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상한 리얼리즘을 완성하는데 주요한 구성요소는 ‘긍정적 인물’이다. 인민공화국 수립기에 창작·발표한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도 인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인물’이 등장한다.

32) “소련에서는 1947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와 다른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가혹한 판단을 내렸다. 민족적 자율성을 이야기하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면 그것을 ‘민족 공산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일방적으로 비판할 정도였다. 그리고서는 이것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고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허용된 것이 이른바 애국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을 비롯한 모든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모든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모든 나라는 이것에 맞추어 자기의 현실과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학사, 2000. 109쪽.

영수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누이 동생이 떠난다구 해서, 동리의 사업을 감당할만한 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국이 부르는 대로 우리는 유능한 일꾼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새 일꾼이 나와서 그 일을 맡게 되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날로 흥성하며, 새로운 일꾼들이 배출되어 나올 것이 안입니까... ..

성실... ..

영수 성실동무! 내누이 동생에게는 혜산 공사지구에서 커다란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니까 선배는 더 큰 사업장으로 가고 그러므로해서 새 일꾼이 다시 마을의 사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업작풍이며 이것이 저이 동리만이 잘되게 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이 아니고 진정으로 조국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³³⁾

인용 극은 백두산 삼림철도 공사장을 배경으로 조국 건설과 인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그린 「산의 감정」³⁴⁾이다. 이 극의 줄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 첫째는 김영감의 농촌 개간에 대한 열성과 고집에서 벌어지는 소를 둘러싼 이야기이다. 둘째는 고장의 일꾼인 영복이가 결혼하여 남편을 따라 혜산 공사장에 가느냐 아니면 아버지를 모시고 이 고장에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³⁵⁾을 드러내는 줄거리이다. 이러한 극의 전체적인 이야기 줄거리에 뛰어들어 해결을 맡은 인물은 영수이다. 영수는 김영감의 아들이자 영복의 오빠로 인민군대에서 표창을

33) 남궁만, 「산의 감정」, 『단막 희곡집』, 북조선직업총동맹군중문화부, 1949. 104-105쪽.

34) 남궁만의 단막희곡 「산의 감정」은 1949년 1월에 창작되어 그해 4월에 북조선직업총동맹군중문화부에서 발행한 『단막희곡집』에 실렸다. 이 극은 백두산 밀림지대를 개간하는 벌목공들과 주위 인민들의 노력·총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동시에 인민경제 2계획의 목표 완수와 김일성에 대한 찬양의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다. 특히, 『단막희곡집』에는 「산의 감정」에 대한 상연 방법과 주의사항을 싣고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에 의해 군중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8·15광복 사 주년 기념 축전' 노동자연극에서 함경남도 대표가 「산의 감정」을 공연한 바 있다.

35) 인민 공화국 수립기에 발표된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는 '이동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산의 감정」에서는 혜산으로 떠나는 영복, 「아름다운 풍경」에서는 백두산 벌목공으로 떠나는 김운영의 모습을 통해 새 조국 건설에 대한 인민들의 조국애를 담고 있다. 그리고 「소낙비」에서는 인민군대로 떠나는 리성근의 모습을 능률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받고 잠시 고향에 휴가차 왔다. 영수는 나라잃은시기 징용을 피해 백두산 기슭에 피해 있다가 인민군대에 자진 입대한 인물이다. 이러한 영수는 아버지 세대가 가진 완고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인민들이 걸어갈 길을 제시해준다. 결과적으로 영수라는 인물은 인민군대로서 고상한 인격과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교양 높은 긍정적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³⁶⁾

이 시기 남궁만의 다른 단막희곡에서도 긍정적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미 북한 문학은 1947년 3월에 ‘고상한 리얼리즘’의 대두로 인해서 긍정적 인물들이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 구체적인 긍정적 인물이 등장하여 북한의 인민들을 계몽하기 시작한 것은 인민공화국 수립기에 접어들고부터이다. 그의 단막희곡에서 긍정적 인물은 광복직후의 단막희곡의 주동인물보다 구체적인 특수성³⁷⁾을 지니게 된다. 「로동자」의 김영운은 나라잃은시기 징용을 가서 모진 고통 속에서 지냈으며, 현재는 조합 활동을 통해서 생활 문화혁신운동에 앞장서며 공장 기계 복구에 성공하면서 영웅대접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소낙비」의 긍정적 인물인 리성근은 나라잃은시기 형제가 독립운동을 한 이력으로 있는 인물로 극중에서 그에게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함께 하던 형을 잃고 독립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인민군대에 자진 입대하기를 결심한다. 하지만 심영감은 성근을 자기의 사위를 삼아 고향을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그는 인민군대에 나아감으로써 인민공화국을 위해 헌신하는 길임을 주장한다.³⁸⁾ 곧, 긍정적 인물들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통해 모범 노동자가 될 수

36) “김영감의 로동자적 본질에서 인민군대로서 수련을 쌓을 때 그는 고상한 인격과 올바른 견식의 소유자가 되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소감을 산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내어놓을 수 있다.” 북조선직업동맹군중문화부, 「산의 감정 상연에 대하여」, 『단막희곡집』, 북조선직업동맹군중문화부, 118쪽.

37) “가령 어떤 공장에 잡이라는 모범로동자가 있다면 그가 모범 로동자가 되기까지는 필연적인 리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리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출신 성분과 과거와 현재의 사생활 및 직장에서의 환경 조건 또는 그의 성격 등을 따져서야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남궁만, 「단막극은 어떻게 쓸 것인가」, 앞의 책, 59-60쪽.

38) “리성근 장인님 남반부의 매국노들이 못 보세요. 놈들의 피락선이야 얼마나 가슴 아프면 소위 국방군이 놈들의 철통같은 경계망을 뚫구 우리 북반부에 넘어왔겠어요. 그런데두 우리 북반부의 젊은이들이 인민군대에 안나가겠어요.” 남궁만, 「소낙비」, 『단막희곡집』, 문화전선사, 1949. 6. 136쪽.

있었던 필연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³⁹⁾

또한 이 시기의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는 긍정적 인물을 통해 인민들의 단결을 외치며 조직력을 갖추어 나가는 공동체적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를 갖추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극 진행 과정에서 인민들은 온갖 어려움과 처해진 현실 상황을 뚫고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이겨내는 조직적인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인민들에게 개인주의를 떨쳐 버리고 하나 되는 집단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운전수 (메-타를 살피며 조절하여 본다) 됐소! 신품에 못지않소.
 공장장 정말입니까. 우리는 성능이 너무 좋은 걸 도리어 걱정했는데요.
 검사원 (그래도 살피기에 열중하여) 기관을 전부 신품으로 바꾸었으니까, 신품을 가지는 성능을 내일 게 아니겠소.
 김영호 (검사원 옆에서 살피다가 내려오며) 정말 크게들 수고했네. 난 인제야 마음을 놓았네. (최와 악수한다. 다시 허성남에게 간다) 허동무, 많은 수고를 했네. (굳게 악수한다)
 김영호 (허를 끌어내며 서장을 준다) 허동무! 야간공전 취침장일세. 오늘 이 마감날이니까. 이 차를 타구 가서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오게.
 허성남 저 같은 게 자격이 있습니까요?
 김영호 훌륭하이. 동무만한 열성과 재능이라면 무엇 못할 일이 없겠네.

<중략>

검사원 (그대로 차체 검사에 분주하다가 기관실로 도라온다. 다시 신중히 살피고 나서) 됐소. 충분하오. 동무들! 크게 공로를 세웠습니다. 먼전 번 전당대회에 동무들의 자랑으로 내어놓은 미까하 107호는 어렵도 없이 좋은 성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일동 (환호가 올은다. 서로 열사안고 날뛴다)⁴⁰⁾

39) 그 외, 「토성량 풍경」의 순학과 「임산철도공사장」의 김윤학 역시도 직접 농촌과 노동현장에서 조국 건설과 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일제에게 혹독한 시련을 겪고 농촌과 노동현장에서 새로운 공산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에서는 소련군 이바노브를 긍정적 인물로 직접 등장시켜 백두산 별목공으로 떠나는 김윤영의 고민을 상담해주게 된다. 조소친선의 목적으로 위대한 소련군의 업적을 부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관차」에서는 재료와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관차를 새롭게 수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경험과 노력을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기관차 수리공장 노동자 전체가 긍정적 인물로 담고 있다.

40) 남궁만, 「기관차」, 『희곡집』, 국립인민출판사, 1948. 9. 34쪽.

인용 장면은 「기관차」의 결말부분이다. 기관차 수리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토록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기관차가 새롭게 가동될 수 있다는 검사원의 검사 결과를 듣고 일제히 기뻐한다. 그동안 과학적 학리와 기계설비의 부족으로 기관차 가동의 불가능을 외쳤던 기술과장 김영호도 그제야 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그리고 야간 공업전문학교를 지원하고 싶어 하던 허성남에게 냉소적이었던 김영호는 그의 열성을 보고 야간공전의 추진장을 써준다. 여러 등장 인물을 통해서 기관차가 여러 부품과 기술이 합쳐서 운행되듯이 수리공장의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일제히 운행하지 못했던 기관차를 움직이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극은 기관차 수리 공장의 노동자들의 노력과 열성을 통해 조국에 대한 애정과 건설 혁명의지를 부르짖고 있다.

그 외, 「소낙비」와 「토성량 풍경」에서는 긍정적 인물의 연설과 설득에 의해 개인주의를 버리고 완전한 조국해방을 위해 인민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다짐한다. 「임산 철도 공사장」에서는 김운학이 직접 자신의 몸을 던져 산악지대 암질과 평지대의 암층 차이를 밝혀내면서 공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설득시켜 과업완수에 절대적인 투쟁력을 발휘하게 한다. 「산의 감정」에서도 인민들과 인민군대의 단결을 통해 조국건설 의지와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게다가 「아름다운 풍경」에서는 소련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소련군 철수후에 인민들은 더욱더 단결된 힘을 발휘하여 조국건설에 온 힘을 다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⁴¹⁾

하지만 인민공화국 수립기에 발표한 남궁만의 단막희곡은 갈등의 심화를 통한 결말을 구축하기보다는 과잉된 혁명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기관차」와 「소낙비」는 갈등의 폭보다는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그 목적이 더 치우쳐있다. 특히, 「임산 철도 공사장」에서는 긍정적 인물인 김운학이 자

41) “이와노브 진정하십시오. 우리 쏘련군대 돌아갑니다. 조선 사람들 일 안하면 누가 이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윤채봉

이와노브 나 이번 전쟁에서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행복은 자기 조국의 품 속에 있습니다.” 남궁만, 「아름다운 풍경」, 『(소련군 환송기념 창작집) - 위대한 공훈』, 문화전선사, 1949. 12. 408-409쪽.

신의 몸을 바친 실험 과정이 지나치게 과잉된 행동의지로 구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극의 진행은 연출의 지도력이 더 발휘되어야 하며 관객에게도 극 진행이 개연성을 떨어지게 하는 위험이 따른다.

2) 묘사적 무대와 보고의 기능 강화

무대는 배우가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배우가 그 앞에서 실제 인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동시에 극작품의 공간인 무대는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극작가는 극 공간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특히, 단막희곡의 경우 막과 장의 활용이 어려워져 단일한 장소에서 배우에 연기의 생명력을 불어 넣고 관객에게는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는 단막희곡이 지녀야 하는 단일한 무대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①

일제 때 빈민굴이었던 土城廊 그리 높지 않은 土城이 舞臺로 가로 건너 갔고 그 위에 性 뚝을 헐어서 上手가 崔京浩네집 下手가 尹德成의 집이다. 꼭같이 널빤지로 담을 둘었고 같은 위치에 大門이 마주섰다. 집도 기와집에 넓직한 마루에 한 모양으로 兩家가 客席을 尙向임하고 正坐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은 京浩네 집은 下手 便으로 모를 꺾어 돌려서 집 모양을 ㅈ자로하여 木造 널빤집으로 織物工場을 가진 것과 大門 한 便에 ××織物合作社라는 木看板이 달린 것이다.⁴²⁾

②

機關車 受理工場- 콘크리트 建築의 大工場은 四面 壁이 유리 門으로 트이었고 工場의 한 부분을 잡은 舞臺 한가운데 老廢한 機關車가 가로 놓였다. 機關車는 修理機台인 비-무자기에 실리어 있다. 機關車 周圍로는 機關用 과일, 車輪, 其他 附屬品들이 山積해 있고 한옆 저 편 뒤로는 旋盤 화로 등의 設備가 바라 보인다.

工場建築은 工場 안을 받드는 鐵柱가 적당히 자리 잡아서 엮어져 올라 갔고, 鐵柱가 천정에서 起重機台를 일으웠는데, 舞臺에는 起重機의 硃쇠가 느러져 있다.⁴³⁾

42) 남궁만, 「토성랑 풍경」, 『문학예술』, 문학전선사, 1949. 9. 20쪽.

인용부 분은 「토성량 풍경」과 「기관차」의 무대 일부분을 옮겨 놓은 것이다. 남궁만의 단막희곡은 무대 묘사가 구체적이다. ① 「토성량 풍경」의 무대는 평양 근처의 토성량과 그것을 헐어서 만든 집과 조합장을 나타낸 것이다. 나머지 직물 공장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다. 무대가 어떠한 무게감으로 설정되어 암시적인 것이 아니라 읽는 이나 관객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 무대를 통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실제 인민들의 삶을 재현시켜주고 있다. ② 「기관차」의 무대도 마찬가지다. 실제 2장에서 함순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기관차를 배치해⁴⁴⁾ 두는 등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노동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이 무대를 배경으로 실제 인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상황과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한 무대 묘사는 작가가 직접 노동자·농민들의 일터와 삶터를 체험하고 겪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⁴⁵⁾

이 밖에 단막희곡에서도 무대는 구체적이며 묘사적이다. 「임산철도공장」과 「산의 감정」에서는 백두산 삼림 공사장의 주위 환경과 공사장의 모습이 자세하게 구현하고 있다. 「노동자」에서는 소비조합과 이동식 백화점의 모습 표현하고 있으며 「소낙비」에서는 산악과 평원이 함께 펼쳐진 평남도의 어느 한 농촌의 모습을 마치 정밀하게 스케치하듯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에서는 무대를 평양 역 주변 공원의 고즈넉한 저녁 분위기를 묘사하여 소련으로 떠나는 이와노브와 아름다운 이별 장소로

43) 남궁만, 「기관차」, 앞의 책, 1-2쪽.

44) “기관차는 길게, 높이 고동을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며 막.” 남궁만, 「기관차」, 앞의 책, 34쪽.

45) 남궁만의 단막희곡 가운데 「임산철도공장」과 「산의 감정」은 실제 백두산 삼림지역을 현장체험하고 적은 작품이다. 「토성량 풍경」도 마찬가지다. 그는 현장보고문 「製系工場記」(『조선문학』, 1947, 9)를 통해 평양 근교 토성량의 제물공장을 형상화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외 「기관차」나 「노동자」는 건설에 매진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현장으로 보고와 서 만든 작품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풍경」은 그가 쓴 「아름다운 풍경」(『문학예술』, 1949, 1)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남궁만은 북한을 떠나는 소련군과 늙은 이발사의 정리를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무대 묘사는 자칫 아마추어적 군중문화사업 공연에 무리한 극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내고 있다. 이러한 남궁만은 묘사적 무대를 통해 북한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모든 인민들의 문화적으로 편리한 생활을 낭만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대가 실제 대중문화 서클 사업에서 자세히 드러내기에는 공연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민공화국 수립기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편지나 신문기사, 라디오 등을 통하여 보고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객은 직접 경험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보고인물과 함께 연극상의 현재라는 가상현실보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받게 된다. 이러한 보고의 기능은 현재화하는 사건이나 사건 주체의 실재성보다는 전달자의 의식이나 이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혜순 (읽는다) 최창선, 김윤학 두 동무 그동안 조국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분투하고 계십니까 나는 군대에서 제대되어 지금 대 남부 씨비리아 철도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2 개년 계획을 새로히 세운 토대 위에서 백두산 립철의 위대한 건설을 위하여 돌진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서 잘 알았습니다. 김동무, 최동무 인제 조선에서 지내던 일이 눈앞에 어리어 동무들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동무들의 일을 자랑합니다. 조국애와 불타는 근로 인민들의 열성과 창발력을 자랑합니다. <중략> 최동무의 친절한 지도로 젊은 김동무의 기술은 많이 발전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중략> 김동무, 최동무! 그리고 백두산 립산립철로동자 동무들! 서로서로 도움고 단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시위합시다. 자기의 역량을! 그리하여 전세계 근로 인민들의 단결된 평화와 자유의 거대한 원동력... ...⁴⁶⁾

② 선부 (눈치를 살피다가) 아저씨 이 신문을 보시오. 인민군대 가족에게는 나라에서 원호를 주시는 법령이 내렸어요.

심영감 (편지를 읽는다)

선부 혜순아 글썄 이것 점 봐. 인민군대에 전사 또는 하사관의 로동자 사무원의 부양 가족에게는 한 사람에 매달 2백원 두 사람이 삼백원 세 사람이 사백원- 그리고 우리 농촌에두 월급으루 로동자의 80퍼센트를 주지 않아. 어디 그뿐이야 현물세두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감해준다구 하지 않았니.

심영감 부양가족은 六十세 五十五세 여섯 살 미만의 애기 딸린 어머니

46) 남궁만, 「임산철도 공사장」, 『종합단막희곡집』, 문화전선사, 1950. 5. 78-79쪽.

열 네 살 미만의 자녀들 불구자... ...47)

앞부분에 인용된 희곡 「임산철도 공사장」에서는 윤학이 수릿재를 실험 폭과하러 윤학이 떠난 뒤 임산철도 공사장 노동자들이 소련의 철도 기술자 ‘이바노브’의 전언이 담긴 편지를 받는다. 이바노브의 편지 속에서는 새 조국 건설에 복무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한다. 특히, 철도 기술자 최창선과 김윤학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편지를 통해 철도 공사장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새 조국 건설에 복무하는 뜨거운 조국애를 발휘하게 된다. 동시에 그동안 수릿재 폭파에 대한 이견을 보인 최창선과 김윤학의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래에 인용된 극 장면은 「소낙비」에서 노동당에서 나온 신문 기사를 읽는 부분이다. 이미 아들을 인민군대에 보낸 심영감은 사위인 리성근마저 군대에 보낸다면 농사일과 마을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때, 당에서 내려온 법령이 담긴 신문기사 내용은 심영감의 마음을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덧붙여 새로운 공산주의 인민군대에 대한 혜택과 자부심을 갖게 되며 사회보험 제도까지 이루어진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문기사, 편지, 라디오를 매개체로 하여 보고자에게 전달되는 대사는 줄거리 과정 진행 과정에 비어 있는 상황을 보충하거나 연결시켜 48) 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지닌 이념을 전달하는 기능까지 맡아하고 있다. 남궁만의 단막희곡 「산의 감정」에서는 인민군대에 있는 영수의 편지를 영복이가 전달하는데, 그 속에는 영수의 징용을 피해 독립 운동하던 이야기와 그의 신념, 김일성의 항일운동 찬양을 담겨져 있다. 그리고 「기관차」에서는 라디오 소리를 통해 활기찬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중문화사업의 활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인민공화국 수립기 남궁만의 단막희곡에서는 긍정적 인물을 등장시켜 새조국 건설에 복무하는 조직적인 단결력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인물들의 과잉된 혁명의지는 갈등의 폭을 좁히고 단선적인 극 결말을 가져오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묘사적 무대 설명을 통해 인민들에게 친숙한 극 공간을 마련했으며 보고의 기능을 강화하여 작가의 이념을 전달

47) 남궁만, 「소낙비」, 앞의 책, 113-114쪽.

48) 민병욱, 『현대희곡론』, 삼영사, 1997. 84쪽.

하고 줄거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냈다. 남궁만의 인민공화국 수립기 단막희곡은 광복 직후 단막희곡에 비해 극 진행 과정은 빠르지 않지만 극적 요소들을 꼼꼼히 배치하여 공산주의 체제 확립이라는 주제에 부합하고자 했다.

IV. 마무리

이 글은 남궁만의 광복기 단막희곡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는 당 정책과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남궁만의 극문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 광복기 북한의 단막희곡의 동향과 남궁만의 창작활동을 ‘광복 직후’와 ‘인민공화국 수립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앞선 시기 구분에 따라 남궁만의 단막희곡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광복기 북한의 단막희곡의 동향과 남궁만의 창작활동은 첫째 시기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에서 1948년 전반부인 ‘광복 직후’이다. 이 시기에 북한의 창작 희곡들은 북한 노동당의 강령에 맞추어진 작품이기보다는 단순한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거나 친일파의 죄악에 대한 폭로, 항일 혁명가들에 대한 찬양, 인민주권을 위한 투쟁을 그린 것이었다. 이 시기에 발표한 남궁만의 단막희곡으로 「하의도」, 「봄비」, 「산하유정」, 「가을」, 「제주도」 등이다.

둘째 시기는 1948년 후반부에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전 기간인 ‘인민공화국 수립기’이다. 1948년에 실시한 경제 2개년 계획은 북한의 농촌 경리계획 초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군중문화 사업이 더욱 활성화시켰다. 그 무렵 남궁만의 단막희곡 「기관차」를 발표했으며, 전문문에 운동으로 남궁만도 평양의 제지공장, 함경남도 백두산 산림 철도공사장을 배경으로 한 단막희곡 「산의 감정」, 「토성량 풍경」, 「임산철도 공사장」을 발표했다.

남궁만의 광복 직후의 단막희곡의 특성은 첫째, 결말을 강조하는 단순 구조를 취하면서 대사 진행과정에서 장면을 압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말구조는 장면의 압축화를 통해 사건의 진행상황을 전달받음으로써 공연

시간과 극적 시간의 차이를 줄여주고 있다. 둘째, 대립적 인물을 형상화하면서 결혼문제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의 극에서는 주동 인물과 반동인물의 극적 갈등을 표면화하며 결혼문제 에피소드를 삽입시켜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남궁만의 광복 직후 단막희곡은 극 진행을 빠르게 전개시키면서 미군정과 상반되는 북한 토지개혁 실시에 대한 지지와 북한 공산사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인민공화국 수립기 남궁만의 단막희곡의 특징은 첫째, 긍정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새 조국 건설에 복무하는 조직적인 단결력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인물들의 과잉된 혁명의지는 갈등의 폭을 좁히고 단선적인 극 결말을 가져왔다. 둘째, 묘사적 무대 설명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극 공간을 마련했으며, 신문이나 기사 같은 매체를 통해 보고의 기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인민공화국 수립기에 발표한 남궁만의 단막희곡은 극적 요소들의 구체적 필연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 체제 확립을 위한 인민들의 조국애를 부르짖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남궁만의 광복기 단막희곡에 드러나는 한계성도 또한 분명하다. 첫째, 광복 초기 단막희곡에서는 급작스럽게 치달아 올라가는 결말부분에서 개연성과 필연성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반동인물의 개심이나 갈등 해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인민공화국 수립기에 발표한 남궁만의 단막희곡은 갈등의 심화를 통한 결말을 구축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과잉된 혁명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남궁만의 단막희곡은 혼란한 정치적 과도기인 광복기라는 시대상황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던 문학 갈래이자 그의 문학적 무기였다. 게다가 남궁만의 단막희곡 창작은 북한문단 활동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그의 단막희곡이 가지는 이데올로기 성향만을 가지고 이제까지의 경직된 평가는 과감히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궁만의 희곡 작품들이 새롭게 발굴되어 그의 극문학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남궁만, 「가을」, 『조소문화』, 1947.
남궁만 외, 『희곡집』, 국립인민출판사, 1948.
남궁만 외, 『희곡집』, 국립인민출판사, 1948.
남궁만, 「濟州道」, 『문학예술』, 문화전선사, 1948.
남궁만외, 「아름다운 風景」, 『위대한 공훈(쏘련군 환송기념)』, 문화전선사, 1949.
남궁만, 「토성량 풍경」, 『문학예술』, 1949.
남궁만·송영, 『문전문고: 단막희곡집』, 문화전선사, 1949.
남궁만 외, 『종합단막희곡집』, 문화전선사, 1950.
남궁만, 『공산주의자』,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북조선문학동맹 희곡전문위원회 편, 『단막희곡집』, 문화전선, 1946.
이재명 엮음, 『해방기 남북한 극문학 선집Ⅱ』, 평민사, 2012.

단행본 및 논문

- 나덕기, 「해방기 북한 희곡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2.
남궁만, 「단막극은 어떻게 쓸 것인가」, 『로동자』, 1949. 3. 62쪽.
남궁만, 「製系工場記」, 『조선문학』, 1947, 9. 250-263쪽.
남궁만, 「아름다운 풍경」, 『문학예술』, 1949. 1, 121-128쪽.
김봉희, 「광복기 단막희곡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8쪽.
김정수, 「해방기 북한연극의 공연미학」, 『공연미학연구』 제20집, 공연문화학회, 2010. 33-37쪽.
김재석, 『한국 현대극의 이해』, 연극과인간, 2011. 76쪽.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2000. 109쪽
김향, 「해방직후 남궁만 희곡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 특성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제42집, 한국극예술연구학회, 2013. 12.
김향, 「인민공화국 수립기 남궁만 희곡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 정치

- 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6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12.
- 민병욱, 『현대희곡론』, 삼영사, 1997. 84쪽.
- 신고송, 「연극동맹」, 『문학예술』, 1949. 8. 79-85쪽.
- 양승국, 「1945-1953년의 남북한 희곡에 나타난 분단 문학적 특질」, 『한국 연극의 현실』, 태학사, 1994.
- 유연주, 「해방기 북한연극의 대중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2-42쪽.
- 이석만, 『해방기 연극 연구』, 태학사, 1996.
- 이재명, 「남궁만 희곡작품에 대한 분석 연구-1936년 발표작 「테릴사위」, 「산막」, 「청춘」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5, 1993. 63-68쪽.
- 전지니, 「해방기 남북한 희곡의 젠더정치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0호, 한국극예술학회, 2013.
- 정낙현, 「북한희곡의 특성과 구조 연구 - 1945-1960년대 중반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조선작가동맹, 『문학예술』 창간호, 문학예술출판사, 1947.
- 한효, 「藝術祝典의 戲曲들」, 『문학예술』. 1949. 16-26쪽.

Abstract

A Study on Nam-gung, Man of One act play

Kim, Bong-hee(Kyungnam Univ.)

The aim of this report is correctly understanding Nam-gung, Man' literature through his Gwangbokgi One-act play reflecting party policy and party trait

The first period of One-act play trend and Nam-gung, Man' creative activity is from August 15,1945 independence to 1948 independence immediately after. Nam-gung, Man' one-act play published in this time is 「Haeui island」, 「spring rain」, 「mountains and rivers humanness」, 「Autumn」 「Jeju island」, etc. Second period is a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that is from the late 1948 just before the June 25th Incident of Korea. This period's works are 「Train」, 「Emotion of Moun」, 「landscape of Toseongrang」, 「Railroad construction site in Imsan」

There are traits of his one-act play of independence immediately after. First trait is simple structure emphasizing the ending and the scene compression through processing lines. Second, his works show dramatic tension through marriage problem and as forming opposite figures. Therefore, he constructs support about land reform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is.

The first trait of his one-act plays in the time of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makes affirmative person have the power of unity to service the construction of new homeland. Second trait is to have detailed and realistic space through depictive stage explanation and to enhance report function through newspaper and article.

His one-act plays stress the power of unity and patriotism to build new communism system in this period. On the other hand, his works have limits of one-act plays. Although his one-act plays have ideology elements, biased and stiff evaluation of his works should be resolutely corrected. Lastly, I hope Nam-gung, Man's works have a chance to be found and studied boardly and variously.

▣ 주제어 : 남궁만, 단막희곡, 광복기, 광복 직후, 인민공화국 수립기, 단순 구조, 긍정적 인물

▣ Key word : Nam-gung,Man, Gwangbokgi, independence immediately after, a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Simple Structure, affirmative person

접수일자: 2016. 3. 27 심사일자: 2016. 4. 20 게재결정: 2016. 4. 28

